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격려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월 둘째 주(5/10)까지 점심, 그리고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를 정상적으로 가집니다.
4. 2020년 '축복의 가정심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방 받으시는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토요일(5/9) 청소년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 점심 식사는 미리 공지한 대로 없습니다. 대신 한나 목장(이영선 권사)에서 맛있는 떡으로 준비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탁금란 집사(박해석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어제 오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유중열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식사담당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담임목사 가정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로렘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2020년도 축복의 가정심방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5번(시편 27:1-6)	다같이
*경배찬송 62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0장(통 98장)	다같이
대표기도	유중열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창 12:1-5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지시한 곳을 향해'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
의
말
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⑧ 허영진 목사
로 3:1-9 '삶으로 증명하라'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과학'(107)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의 단상

봄의 향연(饗宴), 교회 주변이 봄꽃들로 넘쳐난다. 심방 차 교회 인근 청령 대성리로 가는 길. 차창 너머로 연초록빛 녹음 속 청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황금연휴를 즐기려고 쏟아져 나온 차량 행렬로 자동차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나 다름없다. 섰다 가기를 반복하는 까닭에 길가 가장자리에 핀 수수한 꽃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노란민들레, 썬바귀, 애기똥풀, 조팝나무 꽃 이파리가 앙증맞다. 교회서 멀지 않은 거리라 그다지 지겹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막힌 정체 구간을 지나가려면 여간 고역스럽지 않다. 잠시나마 교회 끝자락에 걸려 있던 회색빛 도시를 뒤로하고 노랑, 주홍, 보라 빛으로 차츰 번져가는 꽃들의 향연 속으로, 그렇게 봄의 정취 속으로 들어간다. 한 겨우내 모진 추위와 삭풍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덕분에 지금은 보란 듯 생명의 싹을 틔우고, 보란 듯 자신 만의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은가. 저 작은 몸짓에서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수많은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지나간 자리마다 봄꽃들은 여전히 고운 자태로 시골 길에 남아 있다. 그 시골 길 곁에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 한적한 시골집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만나야 할 사람도, 가야 할 곳도, 볼 것도 많은 도시의 시간. 인사치레한다며 이곳 저곳 얼굴을 내밀고선 막상 집에 돌아와 주머니에서 꺼낸 몇 장의 명함을 보면서 “어,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번잡한 도시의 어딘가에 가서, 때론 누군가를 만나고, 때론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봐야 하지만 시골집의 시간은 다르게 지나간다. 성도의 가정, 잠깐의 기도 시간이 지나면 소소한 차를 맛보는 시간이 주어진다. 스윽 훑고 지나가는 목회자의 눈길에 따라 성도의 반응도 다양하다. 거실 한편을 채운 화분들의 꽃나무가 왜 시들어 있는지 에둘러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단(?) 생각마저 든다. 이런저런 담소 중에 위로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나중 심방 후에 돌아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 또한 놓칠 수 없다.

그렇게 천천히, 한참 동안, 기도와 찬양이 깊이 흐르는 시간. 어느새 그 가정을 위한 말씀과 마주하게 된다. 그 날은 그랬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서 힘든 삶을 살았노라고. 서운함과 마음의 짐이 늘 짓눌려 인생 끝자락에 교회 문을 두드렸노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삶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과 난감한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끊임없이 소망으로 붙들라고 전한다. 그 때 흘리는 눈물이란, 짓누른 삶의 무게가 빠져 나가는 회화와 치유의 눈물임에 틀림없다. 심방이 끝나고서 먼발치까지 쫓아 나와 연신 인사하는 성도 모습 속에 주의 모습이 오버랩(overlap)된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 딱 막힌 반대 차선과 달리 뱅 뚫린 도로 위에 파스한 봄 햇살이 반겨 맞는다. 차창을 열어 손을 내밀어 보니 손등에, 귓볼에, 두 뺨에 시원함이 번진다. 그렇게 4월이 간다. 그렇게 봄이 간다.

Written by 허영진